

목회 상담학적 관점에서 본 욱의 불안과 극복

강철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불안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성경 인물 욱이 겪은 불안의 본질과 그 극복 과정을 분석하여 신학적·상담학적 통찰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욱기 1-42장을 불안을 핵심 주제로 재구성하여, 본문 분석과 문학적 구조 연구, 그리고 상담학적 재구조화 이론(reframing theory)의 적용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욱은 고난 이전부터 자녀들의 죄를 염려하며 예방적 제사를 드리는 완벽주의적 신앙 형태를 보였고, 이는 내면화된 불안의 표현이었다. 재앙 이후 욱과 친구들의 논쟁은 '행위-회복(보응)의 원리'에 대한 신학적 불안과 가치 체계의 붕괴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불안은 대화로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욱 38-42장)을 통해 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신뢰 회복과 내적 평안을 얻었다.

이 연구는 불안을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왜곡된 신관과 통제 욱구에서 비롯된 신학적 문제로 해석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이 불안 극복의 근원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의 상담과 신학적 목회 실천에서 불안의 진단과 해소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불안, 욱, 행위-회복의 관계, 의인, 고난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부교수

• 이 논문은 제42차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학술대회(2024.5.25)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I. 여는 글

욥기는 구약성경에서도 어려운 책 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문학 뿐만 아니라 일반문학에서도 주제나 형식, 작품성에 있어서 높게 평가되어 왔다. 특히 고난가운데서 한 줄기 희망을 바라는 수많은 이들에게서 사랑받아오는 성경이다. 욥기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러한 고난의 문제는 인류가 존재한 순간부터 시대와 장소,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적인 주제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욥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욥기를 의인의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서 욥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그들이 찾는 명확한 답변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Fohrer, 1963).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에 대한 신정론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¹⁾

학자들에 따라 욥기를 읽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욥기는 주로 고난과의 관계속에서 접근해 왔음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욥이 고난 받은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욥이 고난을 받기 전의 상황을 기반으로 욥기 전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욥이 고난 받기 전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 욥기 1:1-5에 소개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평가받을 만 한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자로 평가된 것이 욥에 대한 소개의 전부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욥기를 보게 된다면 욥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불안'과 만나게 된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본다면 우리는 욥이 행복해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근심과 걱정, 즉 불안한 그림자가 욥의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불안은 어떤 위험한 일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함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특히 인간을 연구하는 정신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상담학자, 신학자 등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를 '불안의 세대'로 묘사하고 있다(전요섭, 2017). 그만큼 현대사

1) 욥기의 신정론과 관련해서는 구자용(2019)과 Larrimore(2021)를 참조하시오.

회에서 불안은 현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이유에서 사람들은 더욱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요즘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안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특정한 사람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불안은 하나님-세상-인간의 관계 안에서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²⁾ 이러한 불안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행동을 피하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줌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장윤영 & 김원, 2023). 그러나 불안의 강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사람은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없게 되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신앙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기에 각 학문분야에서는 이러한 불안을 완화하고, 극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전요섭, 2017). 이런 현실 속에서, 욱이 경험한 불안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일은 단순한 고대인의 심리 연구를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안'을 욱이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욱이 고난 이전부터 어떠한 형태의 불안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의 불안이 고난과 논쟁을 거치며 어떻게 표출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욱이 전체의 구조를 '불안의 발생-심화-해소'라는 단계로 재구성하여, 성서신학적 해석과 더불어 상담학적 관점에서 신앙인의 불안 극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욱이의 주제로서의 불안

2) 조형운(2022)은 불안에 대한 일반적, 철학적, 심리학적, 신학적인 개념과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불안을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욥기 연구사에서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주로 내용과 신학, 그리고 배경 등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본 글에서는 불안을 중심으로 욥기 전체의 구조를 새롭게 구성해 보고자 한다. 물론 내용이나 배경을 중심으로 구조를 분석했을 때와 근본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안과 관련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욥기의 구조

전통적인 욥기의 구조 ³⁾	불안을 주제로 한 욥기의 구조
1-2 프롤로그: 욥에 대한 소개와 고난	1:1-5 욥에 대한 소개: 불안의 내면화
	1:6-2:10 욥이 당한 고난: 불안해하던 것의 실현
3:1-42:6 대화부분: 3:1-37:24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38-42:6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응답	2:11-37:24 친구들이 방문과 논쟁: 불안으로 인한 친구들과의 논쟁과 갈등
	38:1-42:6 하나님과의 대화: 불안의 해소과정
42:7-17 에필로그: 욥의 회복과 축복	42:7-17 고난후의 욥에 대한 소개: 불안해소의 결과

욥기 1:1-5는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 부분은 욥이 아직 고난을 받기 전임에도 욥에게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6-2:10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이 시험을 받는다. 그 결과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환난은 욥이 불안해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11-37:24에서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친구들과 욥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길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친구들이 냉정할 정도로 욥을 비난하는 이유 또한 불안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 욥의 말이 사실이라면 친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는 불안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친구들과의 논쟁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막을 내린다. 이어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38:1-42:6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과 친구들을 방문하신다. 이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제기했던 문제와 불안이 해소된다. 마지막으로 42:7-17에서는 하나님과

3) 욥기는 전통적으로 1-2장(프롤로그)과 42장 7-17절(에필로그)은 산문으로, 3-42장 6절(대화)은 시문으로 구분한다(Zenger 외, 2012).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찾아온 욥의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다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욥의 '불안의 발생-심화-해소'라는 단계로 구조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욥의 불안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주로 욥이 겪은 고난이 언급된(1-2장) 이후의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진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의 상황에서부터 욥기에 집중한다면 욥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특히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상담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욱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1) 고난 받기 전

욥기의 첫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욥은 우스라는 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매우 경건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런 욥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도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자리한다.

1:1-5⁴⁾

-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마리요 암 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기의 첫 부분인 1절은 욥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욥이 어느 민족, 어느 지파에 속하며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심지

4) 본 논문의 성경본문은 개역개정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어는 욥이 살고 있던 곳이 우스 땅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욥의 주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욥기를 읽는 독자들이 욥이라는 인물에게만 집중하게끔 하는 저자의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고난의 문제를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⁵⁾

이렇게 욥의 출신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경건한 인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욥의 이러한 삶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매우 깊은 사람임을 보여준다.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언급하는 가장 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욥은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으로서 표본과 같은 인물이었다(하경택, 2018).

2-3절에서는 욥이 받은 자녀와 물질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욥의 경건은 그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복을 통해서 입증된다. 먼저 욥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 즉 열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10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에서 자녀와 관련해서 욥이 받은 복이 매우 큰 것임을 알려준다. 자녀에 이어서 욥의 재산에 대해서도 언급된다. 양과 염소를 포함한 작은 가축이 칠천이고, 낙타가 삼천으로 합이면 마리아다. 소도 오백 겨리(쌍)이고 암 나귀가 오백 마리로 합이 천을 연상케 한다. 욥의 자녀와 재산을 나타내는 이러한 수는 고대 근동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Clines, 2006). 게다가 욥은 그의 가축들을 돌보고, 일을 하는 종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를 통해서 욥은 동방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큰 자)로 인정받았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 욥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저자는 아마도 욥의 부유함과 명성은 곧 욥의 경건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Witte, 2021). 이 부분이 욥기 전체에서 '행위와 결과의 상호관계'(인과율/행위회복의 원칙)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4-5절에서 욥의 경건은 개인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확대

5) 안근조(2007)는 욥기에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가 언급되지 않은 점, 그리고 엘리후를 제외한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외국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욥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특정한 이슈를 다루기 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일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David J. A. Clines(2006)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

된다. 욥의 일곱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자기의 집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은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라 욥의 가정 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보기 좋은 배경 뒤에는 욥의 근심과 불안이 존재한다.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벌인 잔치(미쉬태)는 음식과 포도주로 차려진 잔치(참고 욥 1:13)였다. 당시의 관습에서 보자면 즐거운 잔치에는 맛있는 음식과 술이 함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강철구, 2017). 그러나 술은 술을 마신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술에 취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마음 속에서라도 욕되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잔치가 끝난 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고,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5절에서 "욕되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크* 동사 피엘형으로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러나 원래는 번역처럼 '욕되게하다', '저주하다'(욥 3:1; 5:3)등을 의미하는 *칼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저주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축복하다'로 바꾼 것은 회당에서 욥기가 낭독될 때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불경스러운 말이 울려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하경택, 2018).

욥은 확실하지도 않은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결케하고, 번제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예방 차원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의 제사라고 할 수 있다.⁶⁾ 이렇게 욥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포함해서 자녀들까지도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욥의 이러한 경건한 모습은 모두가 본받을 만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욥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모습은 욥에게 숨겨진 불안이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까지도 미리 떠안고 있는 욥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평안과 자유를 찾기는 어렵다. 욥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불안이 내재된 극단적 경건주의자의 모습이다. 욥은 분명히 경건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의 불안은 그에게서 발견해야 할 신앙인의 기쁨과 자유를 경감시킨다.

욥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욥의 경건과 부유함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만 언급하지만, 본문은 욥이 평상시에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것은 완벽을 지향하지만 완벽하지

6) 하경택(2006)은 욥이 드린 제사를 일종의 보험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못한 피조물이 경험하는 근심과 걱정, 곧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욥은 사탄이 공격하기 전부터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Ebach, 1995).⁷⁾ 비록 욥이 심각한 신경증 환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향한 욥의 행동은 지나쳐 보인다. 욥의 이러한 행동은 욥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임을 드러나게 한다(Clines, 2006). 욥과 같은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는 어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완벽주의자에게 반드시 동반하는 현상이다(진주은 & 강민철, 2020). 자녀들은 각각 고유의 인격체로서 욥이 이들의 삶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타자다. 그럼에도 욥은 이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욥은 근본적인 평온과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욥이 이해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잘못을 범하면 가차없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욥의 하나님은 두렵고, 자신의 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는 분으로, 조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분이다. 그러기에 욥도 더욱 철저히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들 모두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욥의 불안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삶의 전 부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지 않는다면 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2) 고난 중

욥이 불안해하던 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험을 욥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연히 욥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의 사람과 관련된 재앙과 두 번의 자연재해의 주체는 하나님이다(Ebach, 2007).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욥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까지 얻게 되었다. 사람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뤘던 위치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 하지만 비록 욥이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상의 삶속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안고 살아가던 욥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7) Ebach(1995)에 따르면 행위회복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욥은 필연적으로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삶을 추구했지만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순 없었다. 이러한 불안이 현실화되었을 때 욥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3:25-26

**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욥의 현실은 불안한 삶의 연속이다. 결국 욥이 일상속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자신에게 임한다. 1:5의 묘사를 통해서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나 가족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욥의 심리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한병철(2024)에 따르면 불안은 서 있는 세계가 무너질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제 욥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다. 그러기에 경건한 욥에게 있어야 할 평온, 안일, 그리고 휴식이 사라졌고, 그 대신 불안과 분노, 근심과 걱정이 자리잡게 된다.

욕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23:15-17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
문이 아니로다**

욕은 보통의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훨씬 뛰어넘는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난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욥의 불안도 곱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다. 이러한 욥의 상황을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⁸⁾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익숙하지도, 이해할

8) 욥과 같이 병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일상을 살아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불안장애(anxiety disorders)라고 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안장애는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드러난다(안석 & 권정아, 2011).

수도 없는 낯설고, 두려운 분이다. 사실 욥이 경험한 고통 자체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과 흑암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환난이나 재앙, 육체적 고통이나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낯설고, 전적인 타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욥은 그동안 그가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상과 그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의 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불안해하며, 당혹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인다.⁹⁾

2) 친구들의 불안

불안의 관점에서 보자면 욥의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다. 친구들도 욥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기에 욥의 친구들은 욥과 논쟁을 이어가면서 점점 더 욥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인다. 욥의 주장에 대해서 친구들은 매우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욥이 친구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끝날 일임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기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정할 정도로 비난하고, 격렬하게 공격한다.

이러한 논쟁의 배후에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친구들은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욥이 고난 받기 전에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친구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몰아 부치는 지에 대해서 폭로한다. 욥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친구들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진단한다.¹⁰⁾ 그러나 친구들 스스로가 그들이 왜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의 말과 친구들의 향한 욥의 말속에서 친구들이 욥을 그토록 비난했던 이유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다.

6:15-25

15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번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
누나

16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17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9) 욥도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행위회복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욥의 친구들의 세계관으로는 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에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하경택, 2018).

- 18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19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
 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

옳은 친구들을 향해서 속이는 개울과 같은 존재라고 비난한다. 이 말은 옳이 친구들
 에게서 기대한 것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이었는데, 친구들로부터 오는 것은 옳을 향
 한 질타와 비난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옳은 이러한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좌절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친구들을 향한 분노를 낳게 한다. 그런데 친구들도 이렇
 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도 옳과 같은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옳이 당한 일로 인해서 놀라고, 겁을 먹었을 것이다. 친구들의 불안과 두려
 움은 세상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다. 옳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 옳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믿고, 가르쳐왔던 질
 서(행위화복의 관계¹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이
 러한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대해서 옳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옳을 죄인으로
 만듦으로 보다 쉬운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옳은 실망한다. 옳은 친구들이 그의 편을 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친구들에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묻
 는다. 또한 친구들이 옳을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 책망할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
 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옳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친구들의 관심
 사가 아니다. 옳의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옳이 고난
 받고 있다는 결과, 즉 현재의 상황이다. 친구들은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하고자 하

11) 구약의 지혜문학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
 의 관계'(Tun-Ergehen-Zusammenhang)를 의미한다(Lux, 2012).

기에 욥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죄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들의 세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친구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2. 욥과 친구들의 불안의 이유/원인

욥과 친구들은 지루하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같다.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욥의 친구들 중의 한 사람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욥도 욥의 친구들 중의 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그 고난을 당한 친구를 비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으로 이끌어 갔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가가 위기 진단을 신중하게 해야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처럼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주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욥기의 주제 중의 하나가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주제의 중심에 '행위와 결과의 상호관계'(인과율/행위회복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지혜문학(잠언)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잘 작동한다. 이러한 전통의 대변자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다. 이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신학을 확신하고 있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전통적인 주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30:26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음을 고백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자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했다. 그러기에 욥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험과 고난이 닥쳤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욥이기에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신학을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은 행위회복의 관계속에서 통치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욥은 자신의 고통속에서 체험했다.

사실 욥과 친구들 모두 이 세상의 통치원리는 행위회복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확신했다. 단지 친구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다. 반면에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행위회복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셔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행위회복의 원리로 통치하셔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욥과 친구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행위회복의 원리로 다스리시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의 통치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욥을 불안하게 한다. 반면에 친구들은 혹시나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주장을 수긍하기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끝이 나지 않는다. 논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야 하고, 그의 세상을 향한 통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한다(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의 통치방식에 대한 이해). 욥과 친구들의 불안의 원인은 결국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세상의 질서와 그 질서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된다.

3. 불안의 해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위해서든지,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든지 욥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의 제안(상담)은 욥이 당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에 위기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욥과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음에 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면 최소한 욥의 말을 이해하고, 그의 말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욥

도 이러한 친구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상황을 너무 성급하고 미숙하게 진단했으며, 선입견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김태두, 2021). 그러기에 욥은 이들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세 친구를 향하여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비난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김태두, 2021).

욥의 친구들도 욥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그러기에 욥의 말과 그의 경험을 객관화해서 보지 못했다. 친구들은 욥이 제기했던 하나님과 세상의 질서에 대한 문제를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욥의 친구들은 상담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욥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두고 있는 논쟁의 핵심쟁점을 객관화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이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상담자)가 등장해야 한다. 그 분이 바로 욥이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어했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주체로서 욥의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욥의 말을 자세히 듣고 계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과 욥이 한 말을 신뢰하고, 그의 말에서부터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려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욥과 대화를 시작하신다(38:1-42:6).

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해결해주시고자 하는 방향은 두 방향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찾아오셔서, 그의 말을 경청해 주셨다는 데 있다. 욥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줌(13:28)이나 구더기(25:6)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고난 이전의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막연한 불안이나, 고난 가운데서 느끼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욥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오오현, 2011).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도한다. 신뢰는 소문이나, 귀로 듣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신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김준, 2014).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욥이기에 욥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불신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¹²⁾

두 번째로는 욥이 제기했던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욥이 제기한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늘 있어왔다. 어떤 이들은 욥의 문제제기에 적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순응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힘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³⁾.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말씀의 내용도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문서답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욥은 인문학적인 질문을 했으나, 하나님은 자연과학적인 답변을 하셨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Oeming & Schmid, 2017)¹⁴⁾. 하지만 이러한 동문서답을 통해서 욥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욥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을 되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욥이 제기했던 문제는 먼저 ‘왜 의인이 고난 받고, 악인이 잘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문제가 생겼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친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 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신다(38:1-41:34).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자신이 만드신 질서대로 잘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로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서 땅을 견고하게 만드셨고, 창조에 반하는 악한 세력들(베헤못과 리워야단: 바다의 힘)을 통제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잘 작동하도록 하셨다. 또한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새와 동물들로 대표되는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동물의 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욥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세상을 잘못 통치하거나, 불의한 목적을 지닌 분이 아님을 욥에게 증명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창조주로서 세상을 그의 섭리대로 운행하고 계신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더 이상 고통속에 있는 자신의 입장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12)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조형운, 2022).

13)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권지성(2019: 299-302)과 Estes(2007: 172- 173)를 참고하십시오.

14) 표면적으로는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은 서로 상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폰 라드(von Rad, 1996) 역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주제들이 하나님의 답변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보게 되었다(Gutiérrez, 1991).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자신의 제한된 관점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인도하셨고, 새로운 관점과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셨다. 이러한 과정을 상담학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재구조화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김태형, 2010).

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 고난이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미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고, 들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도했다. 이제 욥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안정을 얻게 된다(42:1-6).¹⁵⁾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III. 닫는 글

욥기의 에필로그(42:7-17)를 통해서 욥의 불안은 해소되고,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욥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욥과 소원했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되었고, 욥이 이전에 소유했던 재산은 두 배로 증식되었다. 잃었던 자녀들을 그대로 회복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 같이 일곱명의 아들들과 세명의 딸들을 다시 얻게 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욥기 1:1-5와 달리 일곱 명의 아들들보다는 세 명의 딸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딸들의 이름은 각각 여미마, 곱시야, 게렌합복으로 아름다움과 관련된 이름들이다. 게다가 모든 땅에서 이들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다. 또한 욥은 세명의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산을 물려준다.

욥기의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전의 욥이 아니라 새롭게 변한 욥을 보여주고 있다. 1:1-5에서의 욥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미리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안해했지만, 하나님과 만난 후의 욥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께서도 행위회복의 원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우신 분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자유로우며, 아름다운 곳이고, 동시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잘 작동되고 있다. 실제로 아름다움은 질서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

15) 안석 & 권정아(2011)는 구약에서의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치유된다고 본다.

남을 경험한 욥에게 세상은 더 이상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위로 받고, 새로운 희망을 본 사람에게 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답고, 희망이 있으며, 조화로운 곳이 된다.

본 연구는 욥기를 전통적인 '의인의 고난'이나 '신정론' 중심의 해석에서 벗어나, 고난 이전의 욥에게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불안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재조명 하였다. 이를 통해 욥기의 전체 구조를 '불안의 발생-심화-해소'라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재구성하고, 고난 이전의 욥이 완벽주의적 신앙 태도 속에서 경험한 내면화된 불안을 신학적·상담학적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로 첫째는 고난 이전의 욥을 단순히 경건한 인물로 보아온 통상적 관점을 넘어, 그가 자녀들의 가능성 있는 죄까지도 미리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린 행위를 불안의 표현으로 읽어낸 점에 있다. 둘째는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을 행위-회복(보응) 원리의 긴장 속에서 불안의 신학적 구조로 분석함으로써, 욥기의 신학적 난제를 인간 내면의 불안이라는 정서적 차원과 연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야훼의 연설을 '동문서답'으로 이해해온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고, 창조 질서와 섭리의 재인식이 불안 해소에 주는 신학적·상담학적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성서신학과 목회상담학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불안을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신학적 문제로 규정하였다. 욥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은 과정은, 신앙인의 불안을 치유하기 위한 목회상담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였다. 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재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뢰는 인격적 만남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상담 현장에서 불안을 다루는 성경적 접근에 실질적인 모델을 제공하며, 신앙 공동체 내에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욥기의 에필로그(42:7-17)에서 강조되는 화해와 회복, 그리고 딸들의 아름다움과 상속의 서술은 불안에서 평안으로의 전환이 개인의 내면적 치유를 넘어 공동체적 살림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상담학이나 목회 상담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닌 구약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쓰여졌기에 그 한계도 명확하게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어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상담학적으로 본 논문이 재해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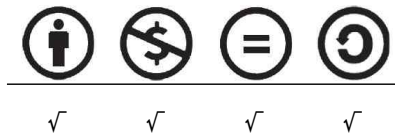
고,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욕구를 통해 인간의 불안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불안이 평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오늘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제한적으로나마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성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치유의 언어로 새롭게 이해하게 하고, 실천 신학적으로는 신앙과 상담을 잇는 통합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욕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불안을 넘어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며, 본 연구는 그 여정에 대한 신학적·상담학적 해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논문 투고일: 2025년 09월 12일

•논문 수정일: 2025년 11월 04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09일



【참고문헌】

- 강철구 (2017). 욱기의 머리말(1-2장)과 맺음말(42:7-17)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65, 12-37. <http://dx.doi.org/10.24333/jkots.2017.23.3.12>
- 구자용 (2019).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악한 것을 또한 받지 못하겠느냐? (욱 2:10): 욱기가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성서 신학적 고찰. **구약논단**, 25, 191-220. <http://dx.doi.org/10.24333/jkots.2019.25.4.191>
- 권지성 (2019). **특강 욱기**. 서울: IVP.
- 김준 (2014). 불안과 기독교 상담: 성경적 인지행동 접근. **성경과 신학**, 71, 85-109.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288525924
- 김태두 (2021). 성경적 위기 목회상담의 이해와 적용: 욱기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9(1), 111-142. <http://dx.doi.org/http://dx.doi.org/10.17841/jocag.2021.29.1.111>
- 김태형 (2010). Donald Capps의 재구조화와 Paul Ricoeur의 해석학을 통한 목회상담-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8, 287-308.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443647173
- 안근조 (2007).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욱기**. 서울: 한들출판사.
- 안석 & 권정아 (2011). 불안(신경증)에 관한 치유상담적 고찰: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적 관점. **신학과 실천**, 27, 215-258.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81715590
- 오오현 (2011). 욱(Job)의 상실(loss)에 대한 목회상담적 소고. **신학논단**, 63, 151-174. <http://dx.doi.org/http://dx.doi.org/10.17301/tf.2011.63..006>
- 장윤영 & 김원 (2023). 불안과 불안 장애의 개념의 역사. **대한불안학회지**, 19, 27-36. <http://dx.doi.org/http://dx.doi.org/10.24986/anxmod.2023.19.2.001>
- 전요섭 (2017). 범불안장애 극복을 위한 경건 묵상(임마누엘 묵상). **복음과 상담**, 25, 211-239. <http://dx.doi.org/http://dx.doi.org/10.17841/jocag.2017.25.2.211>
- 조형운 (2022). 불안에 관한 이해와 치유 및 성경적 극복 방안. **동서정신과학**, 25, 1-19.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964573484
- 진주은 & 강민철 (2020). 대학생들의 완벽주의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

- 식과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 347-360. <http://dx.doi.org/10.22143/hss21.11.6.26>
- 하경택 (2006).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욱기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 하경택 (2018). **욱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Clines, D. J. A. (2006). **욱기 1-20** (한영성 역, *Job 1-20*). 서울: 솔로몬. (원전 1989 출판).
- 한병철(2024). **불안사회** (최지수 역, *Der Geist der Hoffnung: Wider die Gesellschaft der Angst*). 서울: 다산초당. (원전 2023 출판).
- Ebach, J. (1995). Hiobs Töchter. Zur Lektüre von Hiob 42,13-15 (auch eine Art Brief an Luise Schottroff). In J. Ebach (Ed.), *Hiobs Post. Gesammelte Aufsätze zum Hiobbuch zu Themen biblischer Theologie und zur Methodik der Exegese* (pp. 67-7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 Ebach, J. (2007). *Streit mit Gott. Hiob 1-2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 Estes, D. J. (2007). **지혜서와 시편개론** (강성열 역,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 2010 출판).
- Fohrer, G. (1963), *Das Buch Hiob* (KAT XVI), Gütersloh: Gerd Mohn.
- Gutiérrez, G. (1991). **욱기** (제3세계신학연구서 역, *Hablar de Dios desde el sufrimiento del inocente*). 서울: 나눔사. (원전 1986 출판).
- Larrimore, M. J. (2021). **욱기와 만나다: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운명의 책** (강성윤 역, *The Book of Job: A biography*). 서울: 비아. (원전 2013 출판).
- Lux, R. (2012). **이스라엘의 지혜** (구자용 역, *Die Weisen Israels*). 파주: 한국학술정보. (원전 1992 출판).
- Oeming, M., & Schmid, K. (2017). **욱의 길: 고난에 멈추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걷다** (임시영 역,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전 2001 출판).
- Von Rad, G. (1996). **구약성서신학: 제3권 이스라엘의 지혜의 신학** (허혁 역, *Weisheit in Israel*). 왜관: 분도출판사. (원전 1970 출판).
- Witte, M. (2021). *Das Buch Hiob*.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Zenger, E. (Ed.) (2012).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역,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왜관: 분도출판사. (원전 2004 출판).

[Abstract]**Job's Anxiety and Its Overcoming:
A Pastoral Counseling Perspective****Kang, Chol-Gu***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ature of the anxiety experienced by Job, a biblical figure, and to explore how he overcame it, in order to offer theological and counseling insights relevant to a modern society ruled by anxiety. The research employs a literary-theological analysis of Job 1-42 with anxiety as the central motif, integrating structural exegesis and counseling theory—particularly the concept of reframing.

The findings reveal that Job exhibited internalized anxiety even before his calamities, shown in his perfectionistic religiosity and preventive sacrifices for his children. The subsequent debates with his friends expose the instability of the traditional deed-consequence (retribution) principle and the theological insecurity it produced, yet these debates failed to resolve Job's anxiety. True resolution occurred through Job's personal encounter with God (Job 38-42), where he reinterpreted divine order and regained trust and peace.

This study concludes that anxiety, in Job's case, stems from a distorted perception of God and the human desire for control. Overcoming such anxiety requires an experiential, relational encounter with God, which offers an integrated theological and counseling framework for addressing anxiety in contemporary contexts.

Key words: anxiety, Job,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righteousness, suffering

*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epartment of Old Testament
/ Associate Professor